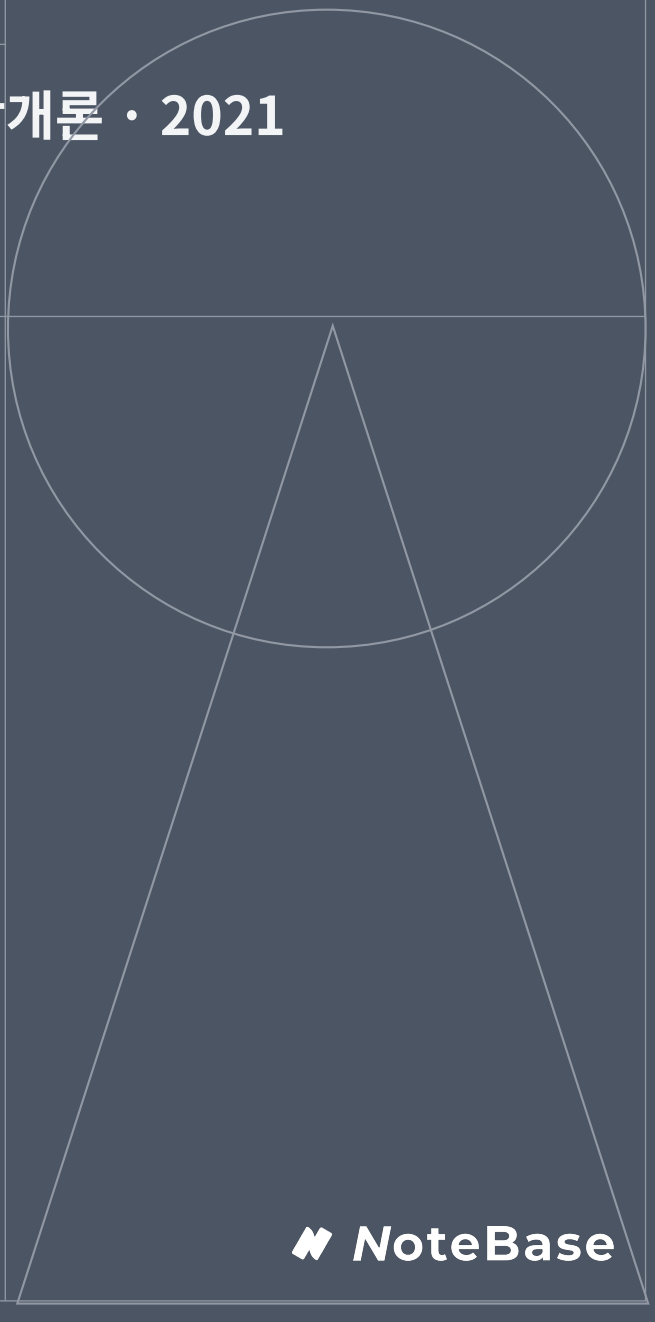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1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1

문 1. 202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는 것은?

① 2020년에 국내기업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② 2020년에 외국기업이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자동차

③ 2019년에 국내기업이 대전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냉장고

④ 2019년에 국내기업이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2020년 중고 거래액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GDP는 기업의 국적이나 판매 장소보다 **해당 연도에 국내에서 생산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기업이라도 2020년에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2020년 GDP에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이다. 이 문제에서는 생산 장소가 우리나라인지, 생산 시점이 2020년인지를 함께 확인한다.

① X: 국내기업이 생산했더라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 내 생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2020년 GDP에는 포함되지 않고, 미국의 2020년 GDP에 포함된다.

② O: 외국기업이 부산 공장에서 2020년에 생산한 자동차는 **2020년 국내 생산**에 해당한다. 기업이 외국 소유라는 점은 국내 생산 여부를 바꾸지 않으며, 수출도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의 판매이므로 우리나라의 2020년 GDP에 포함된다.

③ X: 대전 공장에서 생산했으므로 국내 생산이지만, 생산 시점이 **2019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2019년 GDP에 포함되며, 수출했다는 이유로 2020년 GDP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2020년 중고 거래는 이미 생산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2020년에 새로 생산한 재화가 아니다**. 자동차의 생산가치는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2019년 GDP에 반영되며, 2020년 중고 거래액을 다시 포함하면 같은 재화의 가치를 중복 계산하게 된다.

NoteBase

문 2.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금융정책은?

①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② 재할인율 인상

③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④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인상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고 대금을 지급하면 **시중에 자금이 공급**된다.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대출과 예금 창출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민간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대출과 그에 따른 예금 창출을 뒷받침하므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X: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재할인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이다. 이를 인상하면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 비용이 높아져** 자금 조달과 대출 확대가 억제된다.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은 재할인율 인하이다.

③ X: 법정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다. 이를 인상하면 같은 예금액에 대해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대출과 예금 창출 여력이 줄어든다**.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은 법정지급준비율 인하이다.

④ X: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보유할 때 얻는 수익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급준비금 보유 유인이 커져** 대출과 통화 창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은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이다.

NoteBase

문 3. 배를 생산하는 기업 A가 강을 오염시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적용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코즈정리는 기업 A와 지역주민들 간의 협상보다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효율적인 해결방안임을 강조한다.

② 기업 A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면 기업 A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③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면 기업 A에 의해 오염된 강의 문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④ 기업 A와 지역주민들 간의 협상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작거나 거래 당사자가 적어질수록 코즈정리에 의한 문제해결이 용이해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코즈정리는 권리가 명확하고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작을수록**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쉽다고 본다. 거래 당사자가 적으면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부담이 줄어든다.

선지별 해설

코즈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란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기업과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① X: 코즈정리는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설명한다. 정부가 오염량을 직접 정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기업과 주민들이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를 통해 효율적인 오염 수준을 정할 수 있다.

② X: 기업 A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가 인정되면, 그 권리 범위의 배출에 대해 **주민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염 감소로 주민들이 얻는 편익이 기업의 오염 저감 비용보다 크다면, 주민들이 기업에 대가를 지급하고 배출을 줄이도록 협상할 수 있다.

③ X: 주민들에게 깨끗한 강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면, 기업 A는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기업이 오염을 줄이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배출을 허용받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 문제를 주민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④ O: 거래비용은 협상 상대방을 찾고, 정보를 모으고, 합의를 맺고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 비용이 작으면 협상으로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커지기 쉽다. 또한 **거래 당사자가 적을수록** 의견 조정과 합의가 쉬워져 코즈정리에 따른 해결이 용이해진다.

NoteBase

문 4. 다음의 보도자료로 판단할 때 이번 달 고용 지표에서 나타날 변화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모든 조건은 변함이 없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실업률이 2%로 매우 낮았던 노동시장에 곤란한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달까지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s)였던 사람들 가운데 5만 명이 이번 달에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 배경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통계 당국에 의하면 이들이 활발하게 구직 활동에 나섰음에도 아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① 실업률 상승

② 고용률 하락

③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④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면 **실업자로 편입**된다. 새로 경제활동인구에 들어온 5만 명이 모두 실업자이므로 실업률이 상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구직단념자는 일할 의사가 있어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제시문에서는 이들 중 5만 명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으나 아무도 취업하지 못했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이동한다.

① O: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번 달에는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각각 5만 명 증가한다. **새로 편입된 사람이 모두 실업자**이므로, 실업자가 2%였던 기존 경제활동인구에 이들이 더해지면 실업자의 비중이 커져 실업률이 상승한다.

② X: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사례에서는 구직 활동만 시작했을 뿐 새로 취업한 사람이 없고, 다른 조건도 일정하므로 **취업자 수와 15세 이상 인구가 모두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률은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③ X: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구직단념자 5만 명이 실업자로 편입되면 **경제활동인구가 5만 명 증가**한다.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다.

④ X: 구직단념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5만 명 감소**한다.

NoteBase

문 5.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선분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생산량을 늘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②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한계수입은 양(+)이 된다.

③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총수입이 극대가 된다.

④ 독점기업의 경우 한계비용이 0일 때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수요가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판매량을 늘릴수록 총수입이 감소하고,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우하향하는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가격탄력성이 1인 지점**이 두 구간의 경계이므로 총수입이 극대가 된다.

선지별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 ε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절댓값이다. 총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TR = PQ$이며, 한계수입 MR은 판매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총수입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수요곡선을 따라 가격을 낮추어 판매량을 늘린다는 뜻이다.

① X: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낮출 때 수요량의 증가율이 가격의 하락률보다 작다. 따라서 판매량 증가로 얻는 수입보다 기존 판매분의 가격 인하로 잃는 수입이 더 커져 **총수입이 감소한다**.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 해당한다.

② X: 한계수입과 가격탄력성의 관계는 $MR = P\left(1 - \frac{1}{\varepsilon}\right)$이다. 가격이 양수이고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괄호 안이 음수이므로 **한계수입은 음(−)**이다. 이는 판매량을 늘릴 때 총수입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한계수입이 양수가 되는 것은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이다.

③ O: 우하향하는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판매량이 적은 탄력적 구간에서 판매량을 늘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가격탄력성이 1인 지점에서는 **한계수입이 0**이고, 그보다 판매량이 많은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한계수입이 음수가 되어 총수입이 감소한다. 따라서 총수입은 가격탄력성이 1인 지점에서 극대가 된다.

④ X: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한계비용이 0이면 $MR = MC = 0$이므로 **가격탄력성이 1인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한계수입이 양수이므로, 한계비용이 0인 상태에서 생산량을 더 늘리면 이윤이 증가한다.

NoteBase

문 6. 솔로우 경제성장모형(Solow growth model)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술진보가 없는 경제이다.)

① 저축률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같아진다.

② 저축률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진다.

③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은 높아진다.

④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은 높아진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술진보가 없으면 균제상태에서 1인당 자본과 소득이 일정하므로 **1인당 경제성장률은 0**이다. 저축률은 균제상태의 소득수준을 바꾸지만, 그 상태에서의 1인당 성장률은 바꾸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는 투자가 감가상각된 자본의 보충과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자본 확보에 필요한 양을 충족하여 1인당 자본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인 소득도 일정하므로, 저축률이 달라도 각국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모두 0**이다. 각국의 1인당 소득수준까지 같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저축률이 높아지면 소득 중 투자되는 비중이 커져 자본 축적이 늘어난다. 따라서 새로운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수준은 높아진다**. 새 균제상태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1인당 소득이 증가하지만, 도달한 뒤에는 다시 1인당 성장률이 0이 된다.

③ X: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기존의 1인당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새 인구에게 제공해야 할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 결과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이 줄어들어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진다**.

④ X: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마모되거나 노후화되어 없어지는 자본을 대체하는 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 결과 균제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1인당 자본이 줄어들어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진다**.

NoteBase

문 7. 어느 마을에 세 가구가 살고 있다. 세 가구의 마을방송에 대한 수요는 각각 $W_1 = 150 - T$, $W_2 = 200 - 2T$, $W_3 = 250 - T$이다. 마을방송은 순수한 공공재이며, 이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이 시간당 200원일 때, 효율적인 마을방송 시간은? (단, T는 방송시간, W_i는 가구 i의 방송에 따른 한계편익이다)

① 50

② 100

③ 150

④ 2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순수한 공공재는 같은 방송시간을 함께 소비하므로 **세 가구의 한계편익을 합산**한다. 이 합이 시간당 한계비용 200원과 같아지는 방송시간은 100시간이다.

계산 과정

방송시간을 T, 가구별 한계편익을 W_i라고 한다. 순수한 공공재는 한 가구가 소비해도 다른 가구의 소비가 줄지 않으므로, 방송을 한 시간 늘리면 세 가구가 함께 편익을 얻는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편익은 **같은 방송시간에서 가구별 한계편익을 더한 값**이다. 주어진 식을 합하면 $W_1 + W_2 + W_3 = 600 - 4T$이다.

효율적인 공급량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크면 방송을 늘리는 편이 유리하고, 작으면 줄이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간당 한계비용이 200원이므로 $600 - 4T = 200$을 풀면 $4T = 400$, $T = 100$이다.

100시간에서 각 가구의 한계편익은 $W_1 = 50$, $W_2 = 0$, $W_3 = 150$으로, 모두 시간당 원 단위이다. 두 번째 가구의 한계편익이 0이어도 나머지 두 가구의 편익이 발생하며, 세 가구의 합계는 50 + 0 + 150 = 200원으로 추가 한 시간의 공급비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마을방송 시간은 100시간이며, ②의 100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총수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②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③ 재정정책은 상대적으로 내부시차가 긴 반면 통화정책은 외부시차가 길다.

④ 확장적 통화정책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재정확대로 늘어난 화폐수요가 작은 이자율 상승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 감소인 **구축효과는 작아진다**.

선지별 해설

이자율 탄력성은 이자율 변화에 화폐수요나 투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정책효과는 물가가 일정한 단기 IS-LM 모형에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① O: 구축효과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그만큼 국민소득 증가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같은 이자율 상승에도 투자가 더 크게 감소**하므로 구축효과가 커진다.

② X: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도 화폐수요가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재정확대로 국민소득과 거래 목적의 화폐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주어진 화폐공급 아래에서 화폐시장 균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상승폭이 작다**. 민간투자 감소도 줄어드므로, 선지의 '구축효과가 커진다'는 '구축효과가 작아진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내부시차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뒤 이를 인식하고 정책을 결정·집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외부시차는 정책 집행 후 실제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재정정책은 예산 편성이나 법률 개정 등 의사결정 절차 때문에 **내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길다**. 통화정책은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금리와 금융여건의 변화가 소비·투자와 생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길다.

④ O: 확장적 통화정책은 화폐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와 총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소득을 늘린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같은 이자율 하락에도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하므로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커진다.

NoteBase

문 9.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을 따를 경우 통화량이 두 배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① 물가는 두 배 증가하지만 명목소득은 변화하지 않는다.

② 물가는 변화하지 않지만 명목소득은 두 배 증가한다.

③ 물가와 명목소득 모두 두 배 증가한다.

④ 물가와 명목소득 모두 두 배 감소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유통속도와 실질소득이 일정하므로, 통화량이 두 배가 되면 **물가와 명목소득도 모두 두 배**가 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핵심 풀이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은 교환방정식 $MV = PY$를 바탕으로 한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소득이며, PY는 명목소득이다.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고, 실질소득은 노동·자본·기술 등 실물 요인에 의해 완전고용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통화량 변화에도 **V와 Y는 변하지 않는다**.

통화량 M이 두 배가 되면 V가 일정하므로 명목소득 PY도 두 배가 된다. 이때 실질소득 Y가 그대로이므로 물가 P가 두 배로 상승한다. 즉, **물가와 명목소득이 모두 두 배 증가**한다.

명목소득은 화폐로 표시한 소득이고, 실질소득은 물가 변화를 제거한 소득이다. 명목소득이 두 배가 되어도 물가가 함께 두 배가 되면 구매할 수 있는 재화·서비스의 양은 그대로이다. ②처럼 물가는 그대로인데 명목소득만 두 배가 되려면 실질소득도 두 배가 되어야 하므로, **통화량 증가가 실질소득을 늘리지 않는다는 고전학파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0.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은 경우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발생한다.

② 제품가격보다는 품질과 판매서비스를 통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된다.

③ 각 기업은 장기균형 상태에서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④ 장기균형 상태에서 시장가격은 장기평균비용과 일치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장기균형에서 양(+)의 이윤'은 유지될 수 없다. 이윤이 발생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기존 기업의 수요가 줄어들므로, 장기균형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선지별 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며,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이다.

① O: 시장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으면 제품 한 단위를 판매할 때 비용을 넘는 수입이 생겨 경제적 이윤이 발생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이윤을 얻으려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다.

② O: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한다. 따라서 가격 외에도 **품질과 판매서비스를 통한 비가격경쟁**으로 소비자를 확보하려 한다. 제품 차별화가 클수록 소비자는 가격뿐 아니라 제품의 특성과 서비스도 고려한다.

③ X: 양(+)의 경제적 이윤은 단기에는 가능하지만 **장기균형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이윤을 보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면 소비자의 선택 대상이 늘어나 기존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감소하고, 이윤도 줄어든다. 이러한 진입은 추가 진입의 유인이 사라질 때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경제적 이윤은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을 뺀 것으로, 이윤이 0이라는 말은 기업가의 정상적인 보수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④ O: 장기균형에서는 기업의 수요곡선이 장기평균비용곡선에 접하며, 그 생산량에서 **가격과 장기평균비용이 일치**한다. 판매수입이 기회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충당하므로 경제적 이윤은 0이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유인이 사라진다.

NoteBase

문 11. X재를 공급하는 독점기업 A는 시장1과 시장2가 각기 다른 형태의 수요곡선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독점기업 A가 시장1과 시장2에 판매했을 때 얻는 한계수입은 각각 $MR_1 = 200 - 2Q_1$ 및 $MR_2 = 80 - Q_2$ 이며, 한계비용은 2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_1은 시장1의 수요량, Q_2는 시장2의 수요량이다)

① 시장1과 시장2에 각각 60개와 90개의 상품을 판매한다.

② 시장1과 시장2에 각각 90개와 60개의 상품을 판매한다.

③ 시장1과 시장2에서의 판매가격과 판매량은 동일하다.

④ 시장1과 시장2에서의 판매가격은 상이하지만 판매량은 동일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공통 한계비용 20과 같아져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시장1의 판매량은 90개, 시장2의 판매량은 60개이다.

계산 과정

한계수입은 상품을 한 개 더 판매할 때 늘어나는 총수입이고, 한계비용은 한 개 더 생산할 때 늘어나는 총비용이다. 시장별로 판매량을 결정할 때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작으면 줄이는 것이 이윤에 유리하다. 두 시장 모두 판매량이 늘수록 한계수입이 감소하므로,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공통 한계비용과 같게** 하는 판매량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MR_1 = MR_2 = MC = 20$을 적용한다.

시장1: Q_1은 시장1의 판매량이다. $200 - 2Q_1 = 20$을 풀면 $2Q_1 = 180$, $Q_1 = 90$이다. 즉, 시장1에 90개를 판매할 때 추가 판매에 따른 한계수입이 한계비용 20과 같아진다.

시장2: Q_2는 시장2의 판매량이다. $80 - Q_2 = 20$을 풀면 $Q_2 = 60$이다. 시장2에서는 60개를 판매할 때 한계수입이 한계비용 20과 같아진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량은 시장1에서 90개, 시장2에서 60개로, ②의 설명과 일치한다. 두 시장의 판매량이 다르므로 판매량이 같다고 한 ③과 ④는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2.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 U는 $U = XY$로 주어져 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소비자의 Y재 소비량이 X재 소비량보다 2배 많다고 하자. X재의 가격이 3일 때 Y재의 가격은?

① 1

② 1.5

③ 2

④ 6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효용이 $U = XY$일 때, 두 재화를 모두 소비하는 효용 극대화점에서는 **소비량의 비율과 가격의 역비율**이 일치한다. Y재 소비량이 X재의 2배이므로 Y재 가격은 X재 가격의 절반인 1.5이다.

계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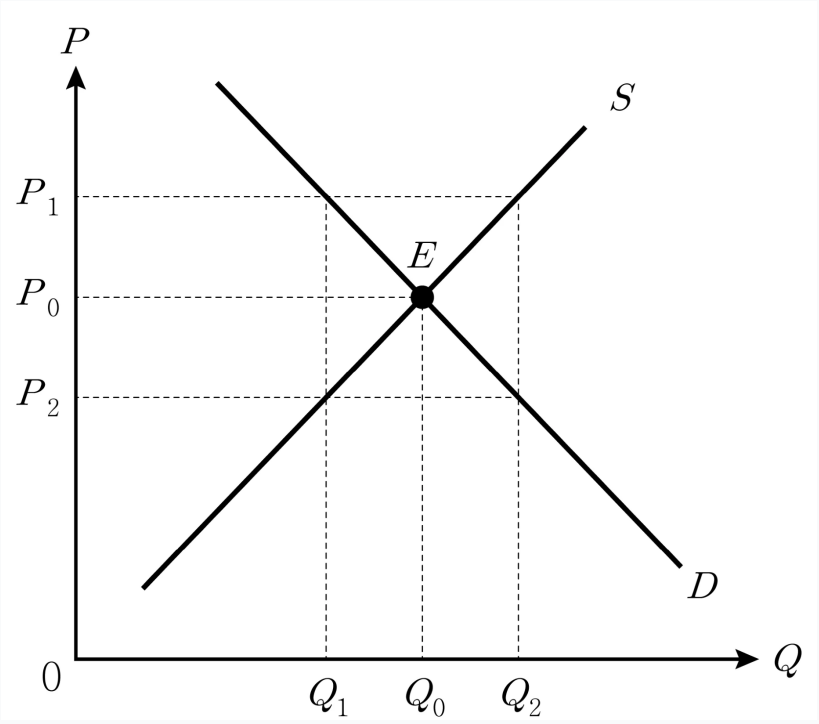
X와 Y는 각 재화의 소비량이고, P_X와 P_Y는 각 재화의 가격이다. 한계효용은 해당 재화의 소비량을 조금 늘릴 때 추가로 얻는 효용이다. 효용함수 $U = XY$에서 다른 재화의 소비량을 고정하면 $MU_X = Y$, $MU_Y = X$이다.

두 재화를 모두 소비하는 효용 극대화점에서는 **가격 1단위당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한쪽이 더 크면 지출을 그 재화로 옮겨 효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rac{MU_X}{P_X} = \frac{MU_Y}{P_Y}$이며, 한계효용을 대입해 정리하면 $\frac{Y}{X} = \frac{P_X}{P_Y}$이다. 즉, Y재를 X재보다 많이 소비하는 비율만큼 X재 가격이 Y재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주어진 소비량 관계는 $Y = 2X$이므로 $\frac{Y}{X} = 2$이다. 여기에 $P_X = 3$을 대입하면 $\frac{3}{P_Y} = 2$이고, $P_Y = \frac{3}{2} = 1.5$이다. 따라서 Y재의 가격은 1.5이며, ②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그림은 무역이 전혀 없는 소국 경제 A국에서 완전경쟁적인 국내 X재 시장에서의 수요곡선(D), 공급곡선(S), 균형(E)을 나타낸다. A국에서 X재의 자유무역이 허용되어 국제가격이 P_1에서 형성되었을 때, 국제시장에서 가격수용자이며 X재를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한 A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① $\overline{Q_0Q_2}$만큼 수출한다.

② 국내 시장 가격은 P_1이 된다.

③ 국내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④ 국내에 $\overline{Q_1Q_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국제가격 P_1이 무역 전 국내 균형가격 P_0보다 높으므로,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국내가격도 국제가격까지 상승**한다. 이 가격에서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그 차이를 수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그림에서 가격이 P_1일 때 공급곡선 S에 대응하는 국내 생산량은 Q_2, 수요곡선 D에 대응하는 국내 소비량은 Q_1이다.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에서 국내 소비량을 뺀 양**이므로 $Q_2 - Q_1$, 즉 $\overline{Q_1Q_2}$이다. $\overline{Q_0Q_2}$는 무역 전보다 늘어난 국내 생산량만 나타내며, 국내 소비 감소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O: A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소국이며, 자유무역으로 국내외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가격이 P_1보다 낮으면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해외로 수출하려 하므로 국내가격이 오른다. 반대로 국내가격이 P_1보다 높으면 더 싼 해외 재화가 수입되므로 국내가격이 내려간다. 따라서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같은** P_1이 된다.

③ X: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금액에서 실제 지출액을 뺀 것으로, 그림에서는 수요곡선 아래와 시장가격선 위의 면적이다. 국내가격이 P_0에서 P_1로 오르면 소비량이 Q_0에서 Q_1로 줄고 이 면적도 작아진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잉여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④ X: 가격 P_1에서 국내 공급량은 Q_2, 국내 수요량은 Q_1이므로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다. $\overline{Q_1Q_2}$는 초과수요가 아니라 **국내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을 초과하는 양**이다. 자유무역하에서는 이 물량이 수출되어 해외 수요로 흡수된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어느 토마토 농가의 평균비용을 나타낸 표이다. 이 농가의 고정비용은 35만 원이며 토마토의 시장가격이 한 상자에 15만 원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상자)은? (단, 토마토는 완전경쟁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토마토 생산량 (상자)	상자당 평균 고정비용 (만 원)	상자당 평균 가변비용 (만 원)	상자당 평균 비용 (만 원)
1	35	24	59
2	18	20	38
3	12	20	32
4	9	21	30
5	7	23	30

① 0

② 1

③ 3

④ 5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시장가격 15만 원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솟값인 20만 원보다 낮다**. 생산하면 가변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해 고정비용 외의 손실이 추가되므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NoteBase

핵심 풀이

완전경쟁시장의 농가는 주어진 시장가격으로 토마토를 판매한다. 단기에는 생산을 중단해도 고정비용이 발생하므로, 생산 여부는 가격으로 가변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의 최솟값보다 낮으면** 어떤 양을 생산해도 판매수입이 가변비용보다 작아 생산을 중단한다.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생산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표의 상자당 평균가변비용은 생산량 1~5상자에서 각각 24만 원, 20만 원, 20만 원, 21만 원, 23만 원이다. 가장 낮은 값도 20만 원으로 시장가격 15만 원보다 높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양의 생산량에서 **판매수입으로 가변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

생산을 중단하면 판매수입과 가변비용은 없고 고정비용 35만 원만 손실로 남는다. 반면 생산하면 고정비용 35만 원에 가변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까지 손실로 더해진다. 이윤극대화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이 농가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0상자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3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상의 빅맥 가격이다. 빅맥 가격을 이용하여 구매력평가설로 예측한 적정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3년 간 달러에 대한 원화의 시장환율은 1,200원/달러로 일정하다)

가격 / 연도(년)	빅맥 가격	
	한국(원)	미국(달러)
2030	4,000	4
2031	5,400	4
2032	4,800	5

① 구매력평가설로 예측한 2030년 적정환율은 1,000원/달러이다.

② 구매력평가설로 예측한 2031년 적정환율은 전년도에 예측한 적정환율에 비해 35% 상승하였다.

③ 구매력평가설로 예측한 2032년 적정환율이 실제 환율에 반영된다면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④ 2031년에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미국의 빅맥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다고 느낄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31년 미국의 빅맥 가격 4달러를 시장환율 1,200원/달러로 환산하면 4,800원이다. 한국 가격 5,400원보다 600원 낮으므로 미국의 빅맥이 **더 싸다고 느낄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구매력평가설의 적정환율은 같은 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통화로 환산했을 때 같아지게 하는 환율이다. 원/달러 표시 적정환율은 한국의 원화 가격을 미국의 달러 가격으로 나누어 구한다. 실제 구매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시장환율 1,200원/달러를 적용한다.

① O: 표의 2030년 빅맥 가격은 한국 4,000원, 미국 4달러이다. 적정환율은 $\frac{4,000}{4} = 1,000$원/달러이다. 이 환율에서는 미국의 빅맥 4달러가 한국의 빅맥 가격 4,000원과 같아진다.

② O: 2031년 빅맥 가격은 한국 5,400원, 미국 4달러이므로 적정환율은 $\frac{5,400}{4} = 1,350$원/달러이다. 상승률은 **전년도 적정환율 1,000원/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frac{1,350-1,000}{1,000} \cdot 100 = 35\%$이다. 시장환율 1,200원/달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③ O: 2032년 빅맥 가격은 한국 4,800원, 미국 5달러이므로 적정환율은 $\frac{4,800}{5} = 960$원/달러이다. 이 환율이 실제 환율에 반영되면 원/달러 환율은 1,200원에서 960원으로 하락한다.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들므로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는 상승**한다.

④ X: 2031년 미국의 빅맥 가격은 4달러이다. 한국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원화 비용은 **시장환율 1,200원/달러**를 적용한 4 × 1,200 = 4,800원이다. 같은 해 한국의 빅맥 가격은 5,400원이므로 미국이 600원 더 싸다. 따라서 '한국보다 비싸다고 느낄 것이다'는 '한국보다 싸다고 느낄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6. 다음 국민소득계정 자료에 기초할 때, 이 경제의 투자(*I*) 규모는? (단, *T*는 조세,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단위: 조 원)

국내총생산(Y)	1,000
가처분소득($Y-T$)	900
재정적자($G-T$)	200
소비(C)	600
순수출($X-M$)	-100

① 100조 원

② 200조 원

③ 300조 원

④ 500조 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정적자 200조 원은 정부지출 자체가 아니라 **정부지출에서 조세를 뺀 금액**이다. 정부지출 300조 원을 구해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 대입하면 투자 규모는 200조 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국내총생산 Y는 소비 C, 투자 I, 정부지출 G, 순수출 X − M의 합과 같다. 따라서 국민소득계정 항등식 $Y = C + I + G + (X - M)$에서 소비·정부지출·순수출을 빼면 투자 규모를 구할 수 있다. 표의 금액 단위는 모두 조 원이다.

조세 계산: 가처분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조세를 뺀 금액이다. 표에서 국내총생산은 1,000조 원, 가처분소득은 900조 원이므로 $T = 1{,}000 - 900 = 100$, 즉 조세는 100조 원이다.

정부지출 계산: 재정적자는 **정부지출이 조세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G - T = 200$이므로 $G = 200 + 100 = 300$, 즉 정부지출은 300조 원이다.

투자 계산: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을 투자에 대해 정리하면 $I = Y - C - G - (X - M)$이다. 순수출이 −100조 원이므로 **음수인 순수출을 빼야 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I = 1{,}000 - 600 - 300 - (-100) = 200$이다. 투자 규모는 200조 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소비함수에서 기울기 b가 커질 때 나타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가처분소득, C는 소비이다)

$C = a + bY$ (단, $a > 0, 0 < b < 1$)

① 정부지출승수가 작아진다.

②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진다.

③ 평균저축성향이 낮아진다.

④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같은 가처분소득에서 기울기 b가 커지면 소비가 늘고 저축은 줄어든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저축성향이 낮아진다**.

선지별 해설

자율소비 a와 양(+)의 가처분소득 Y를 일정하게 두고, 소비함수 $C = a + bY$에서 b가 커지는 효과를 비교한다.

① X: 단순 케인스 모형의 정부지출승수는 $\frac{1}{1-b}$이다. $0 < b < 1$에서 b가 커지면 분모가 작아지므로 승수는 **커진다**. 정부지출로 늘어난 소득 중 소비에 쓰이는 비중이 높아져 후속 소비지출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X: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며, 이 소비함수에서는 기울기 b와 같다. 따라서 b가 커지면 한계소비성향은 **높아진다**.

③ O: 저축 S는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이므로 $S = Y - C = -a + (1 - b)Y$이다. 평균저축성향은 $\frac{S}{Y} = 1 - b - \frac{a}{Y}$이다. 같은 a와 Y에서 b가 커지면 **소득 중 저축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④ X: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frac{C}{Y} = \frac{a}{Y} + b$이다. 같은 a와 Y에서 b가 커지면 평균소비성향은 **높아진다**.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의 합은 1이므로, 평균저축성향이 낮아지는 것과도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수요독점(monopsony)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산출물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①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의 경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한다.

②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의 경우에 비해 임금이 상승한다.

③ 노동공급곡선과 한계생산가치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④ 한계요소비용곡선과 한계생산가치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수요독점 기업은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생산가치가 같아지는 고용량**을 선택한다. 임금은 이 고용량에 대응하는 노동공급곡선상의 수준으로 결정된다.

선지별 해설

수요독점 노동시장은 노동을 고용하는 기업이 하나인 시장이다. 일반적인 우상향 노동공급곡선 아래에서는 고용을 늘리려면 임금을 높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하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함께 올라가므로,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할 때 늘어나는 총노동비용인 한계요소비용은 임금보다 크다. 따라서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보다 위에 놓인다.

① X: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공급곡선과 한계생산가치곡선의 교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된다. 수요독점 기업은 노동공급곡선보다 높은 한계요소비용곡선과 한계생산가치곡선이 만나는 고용량을 선택한다. 한계생산가치가 고용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우, 수요독점의 고용량은 완전경쟁에 비해 **적다**.

② X: 수요독점 기업은 완전경쟁보다 적은 노동을 고용하고, 그 고용량을 공급받는 데 필요한 임금을 지급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더 적은 고용량에 대응하는 임금도 낮다. 따라서 수요독점에서는 완전경쟁에 비해 **임금이 하락한다**.

③ X: 노동공급곡선과 한계생산가치곡선의 교점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고용량을 나타낸다. 수요독점에서는 먼저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생산가치가 같은 고용량을 정한 뒤, **그 고용량에서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내는 임금**을 지급한다. 한계요소비용곡선과 한계생산가치곡선 교점의 높이를 그대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④ O: 산출물시장이 완전경쟁이므로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해서 얻는 추가 수입은 산출물 가격에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곱한 한계생산가치이다. 이 값이 한계요소비용보다 크면 고용을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고, 작으면 고용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윤극대화 고용량은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생산가치가 같아지는** 두 곡선의 교점에서 결정된다.

NoteBase

문 19.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합생산물(joint products)은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

②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상 이점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③ 어떤 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길 때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생산과정에서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하면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규모의 불경제는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평균비용 상승이고, 범위의 경제는 여러 제품을 따로 생산할 때보다 함께 생산할 때 총비용이 적게 드는 현상이다. 비교 기준이 다르므로 **규모의 불경제와 범위의 경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결합생산물은 하나의 생산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여러 산출물이다. 원료나 생산공정을 공유하여 각 제품을 따로 생산할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O: 범위의 경제는 같은 종류와 수량의 제품들을 **한 기업이 함께 생산하는 총비용이 각각 따로 생산하는 총비용의 합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여러 제품이 설비·기술·유통망 등을 공유하면 이러한 비용상 이점이 생길 수 있다.

③ O: 주제품을 생산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거나 판매하면 별도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재를 가공하면서 생기는 톱밥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면 **하나의 생산과정에서 여러 제품을 얻는 비용상 이점**이 생길 수 있다.

④ X: 규모의 불경제는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생산규모 변화에 따른 비용**을 비교한다. 반면 범위의 경제는 같은 산출량의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와 따로 생산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비교한다.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가 있더라도 설비나 원료를 공유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남을 수 있으므로,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20. 두 명의 친구가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자신들의 저축성예금(savings deposit) 중 1년 만기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각각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을 때, 통화지표 *M*1과 *M*2에 생길 수 있는 변화는?

① M1은 증가하고 M2는 변화가 없다.

② M1은 증가하고 M2는 감소한다.

③ M1은 감소하고 M2는 변화가 없다.

④ M1은 감소하고 M2는 증가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1년 만기 정기예금은 M1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M2에는 포함된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M1은 증가**하고, M2 안에서 예금이 현금으로 바뀔 뿐이므로 **M2는 변하지 않는다**.

핵심 풀이

M1의 변화: M1은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처럼 바로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구성된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은 M1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친구가 각각 300,000원을 인출하면 M1에 포함되지 않던 예금이 M1에 포함되는 현금으로 바뀌므로, M1은 총 600,000원 증가한다.

M2의 변화: M2는 M1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같은 금융상품을 더한 넓은 통화지표이다. 인출로 정기예금은 600,000원 줄지만 현금은 같은 금액만큼 늘어난다. **둘 다 M2에 포함**되므로 구성만 바뀌고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M1은 증가하고 M2는 변화가 없다.

NoteBase